

정동현 “내년엔 선발” 김현준 “1군 데뷔”



KIA 타이거즈의 고졸 1년차 기대주 김현준(왼쪽)과 정동현(가운데)이 오키나와 캠프에서 2017 시즌을 준비한다.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한승혁과 함께 뛰고 있는 모습.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키나와 캠프 첫 합류 야기호랑이들의 2017 시즌 각오



1년을 기다린 ‘야기 호랑이’의 캠프가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 마무리캠프 선수단이 지난 31일 일본 오키나와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최고참 김주형을 필두로 한 33명의 선수단에는 처음 오키나와에서 훈련을 하게 된 1년차 고졸 투수 정동현과 김현준도 있다. 정동현은 고졸 신인 첫 선발 등판에서 승리투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좌완 기대주, 김현준은 2016 우선 지명으로 타이거즈 선수가 된 유망주다.

두 어린 투수에게는 김기태 감독과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된 캠프다. 김기태 감독은 지난해 마무리 캠프와 앞선 스프링 캠프 명단에 신인 투수들의 이름을 땀. 아직 몸이 채 영글지 않은 어린 투수들이 오버 페이스를 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차분하게 프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이번 캠프에도 김석환, 박정우, 이정훈, 최승주 등 2017 신인 야수들이 포함됐지만 신인 투수들은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2016 입단 동기 정동현과 김현준은 1년을 기다린 끝에 처음 오키나와에서 어필 무대를 갖게 됐다. 앞서 미국 애리조나 교육리그에도 참여했던 만큼 두 선수에게는 훈련의 연속이지만 마음은 가볍다. 프로 첫 시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7시즌 당당히 1군 마운드에 서겠다는

정동현

체력 관리 중요성 깨달아

트레이닝·경기 방법 숙지

김현준

제구 좋아지고 스피드 올라

직구 더 가다듬고 즐길 것

각오다.

정동현은 “데뷔 첫 해 승리투수가 되기도 했지만 아쉬운 게 많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시즌 마지막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형(정대현·kt)과 맞대결도 벌일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쉽다”고 첫 시즌을 돌아봤다.

지난 6월10일 정동현과 정대현은 각각 삼성과 넥센전 선발로 나서면서 한국 프로

야구 사상 첫 형제 동반 선발 등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날 프로 데뷔 첫 선발 등판에 나섰던 정동현은 삼성 윤성환을 상대로 승리를 챙기며 활짝 웃었다. 하지만 프로의 높은 벽에 막혀 이후 6번의 등판에서 2패만 남겼다. 7월21일 롯데전 구원 등판이 그의 마지막 기록이다.

정동현은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 애리조나 교육리그에서도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시즌을 준비하고 경기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왔다”며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다. 내년 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목표로 마무리 캠프를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은 아직 1군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입단 동기들이 1군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아쉽지는 응원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컸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캠프에 임하는 마음이 특

별하다.

김현준은 “감독님과 코치님들과 처음 오키나와에서 캠프를 하게 됐는데 기대가 많이 된다. 재미있을 것 같다”며 “동기들이 1군에 데뷔하고 뛰는 것을 보면서 응원도 많이 하고 같이 좋아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다. 내가 많이 부족했었다”고 말했다.

애리조나 교육리그에서 부쩍 스피드가 오른 김현준은 그 분위기를 이어 마무리 캠프에서 직구를 가다듬을 생각이다.

김현준은 “교육리그에서 직구 비율을 높였다. 제구도 좋아졌고 스피드도 올라서 기분이 좋다. 형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 직구를 우선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일단 직구가 좋아야 변화구도 통하는 만큼 이번 캠프에서 직구를 더 가다듬고 즐겁게 하고 오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자 프로배구

춘추전국 시대

1~4위 승점 1점차 혼전



■남자부 팀 순위 <31일 현재>

순위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1	대한항공	4	8	3	1
2	우리카드	4	8	2	2
3	현대캐피탈	4	7	3	1
4	한국전력	4	7	3	1
5	KB손해보험	4	5	1	3
6	삼성화재	4	4	1	3
7	OK저축은행	4	3	1	3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시즌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

남자 프로배구가 개막 이후 팀별로 4경기씩을 치렀다.

아직 무패 팀도, 무승 팀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올 시즌 V리그는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개막 이후 3연승을 질주했던 대한항공은 30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KB손해보험에 세트스코어 1-3으로 탈미를 잡았다.

현재 1위 대한항공(승점 8)부터 4위 한국전력(승점 7)까지 승점 차는 고작 1점에 불과하다.

대한항공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고 시즌 첫 승리를 신고한 5위 KB손보(승점 5)는 대한항공에 승점 3 차이로 다가섰다.

이처럼 각 팀이 총출동해 붙어 있어 승리와 패배가 엇갈리는 순간 곧바로 순위표가 요동칠 수 있다.

‘디펜딩 챔피언’ OK저축은행은 1승 3패, 승점 3으로 최하위지만 최근 2경기에서 모두 세트세로 점전을 치르며 점차 팀 전력이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전력 편조화가 현실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대한항공은 트라이아웃 전체 1순위로 맞아 가스파리니를 뽑는 행운을 누리며 단박에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가스파리니는 득점 5위에 그친 것은 물론 ‘서브 머신’이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서브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삼성화재가 4순위로 지명된 타이슨 털 호스트, 우리카드가 5순위로 뽑은 크리스티안 파다르는 득점 부문 1, 3위에 오르며 전력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카고 컵스 벼랑끝 탈출…WS 2승3패



시카고 컵스가 질긴 ‘염소의 저주’에 다시 무릎을 꿇을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다.

컵스는 3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계속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2016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7전 4승제) 5차전에서 3-2로 승리했다.

컵스는 이날 경기 전까지 1승 3패의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이날 지면 1908년 이후 무려 108년 만의 챔피언 등극 꿈도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컵스는 ‘와후 추장의 저주’에 시달리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진담승을 거두고 승부를 6차전으로 끌고 갔다.

이날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존 레스터(컵스), 트레버 바우어(클리블랜드)였다.

두 투수 대결에서 역시 레스터가 웃었다.

레스터는 6이닝을 4피홈타(1피홈런) 무사사구 5탈삼진 2실점으로 막고 승리 투수

5차전서 클리블랜드에 3-2 승…호세 라미레스 솔로포

가 됐다.

호세 라미레스는 2회초 레스터의 시속 147km(92.3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좌월 솔로포를 터뜨렸다.

클리블랜드는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선취점을 얻으면 예외 없이 끝까지 리드를 지켰다.

이번에는 달랐다.

컵스는 4회말 3점을 올리며 단숨에 역전했다.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신포탄을 쏘아 올렸다.

그는 4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바우어의 시속 147km(91.5마일) 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중월 홈런을 폭발,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컵스는 브라이언트를 시작으로 4타자 연속 안타를 쳐 1점을 보냈고, 이어진 1사 만루에서 데이비드 로스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3-1로 달아났다.

컵스의 수비 집중력도 훌륭했다.

1루수 앤서니 리조와 우익수 제이슨 헤

이워드는 클리블랜드의 파울성 타구를 몸으로 날려서 잡아내 아웃카운트를 추가했다.

‘와후 추장의 저주’를 풀기 위한 클리블랜드의 투지도 강했다.

6회초 2사 2루에서 프란시스코 린도어의 타구가 중견수 앞을 향하면서 1점을 추격, 3-2로 따라갔다.

컵스는 3-2로 앞선 7회초 1사 2루에서 마무리 투수 아롤디스 채프먼을 마운드에 올리는 승부수를 띄웠다.

채프먼은 팀의 뒤통을 단단히 걸어잡으며 이름값을 했다.

컵스는 ‘염소의 저주’에, 클리블랜드는 ‘와후 추장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다.

컵스는 1908년 이후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챔피언에 도전한다. 클리블랜드는 1948년 이후 68년 만에 대권 도전에 나섰다.

양 팀은 이를 뒤인 2일 클리블랜드의 홈구장인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6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조선대, 전국 검도대회 우승

조선대 검도부가 전국 검도대회에서 우승,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조선대는 지난 28일부터 3일간 경북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 47회 추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서 유원대를 누르고 단체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조선대는 국민·성균관대를 잇따라 누르고 준결승에 올라 경북대를 4대 1로 꺾고 결승전에서 유원대와 맞붙어 2대 1

로 승리,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조선대 검도팀은 제 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대학부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길현 조선대 감독은 “전국체전 대학부 준우승에 이어 추계 대학검도연맹전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낸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야구 U-23 세계선수권

한국, 멕시코 꺾고 3연승

한국 야구 대표팀이 23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예선 라운드에서 3연승을 질주했다.

장재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31일(이하 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구장에서 열린 대회 A조 예선라운드 3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를 6-1로 제압했다.

LG 트윈스 출신의 좌완 파이어볼러 임지섭(상무), 전상현(KIA 타이거즈), 변진수(경향청)가 멕시코 타선을 3안타 1실점으로 봉쇄하며 3연승을 견인했다.

선발로 나선 임지섭은 최고 시속 147km의 빠른 볼을 앞세워 6이닝 동안 탈삼진 5개를 잡아내며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전상현이 2이닝 3탈삼진, 변진수가 1이닝 1탈삼진으로 뒤통을 지켰다.

멕시코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체코,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A조에 편성된 한국은 1일 베네수엘라와 예선 라운드 4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